

공공도서관 최고 인기책은 한강 '채식주의자'

〈2만2565건 대출〉

지난해 660곳 대출기록 분석
2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5·18 다룬 '소년이 온다' 8위
올해 공공도서관 68곳 신설

지난 2016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정교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섬세한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디펜던트 선임기자인 보이드 톰킨은 "맨부커상을 수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660여개 공공도서관의 2017년 대출 데이터를 분석했다. 약 5700만권을 '도서관 정보나루'로 분석한 결과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만2565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채식주의자'는 '영해'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 영해의 뇌리에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죽이는 장면이 박혀 있다. 그로 인해 육식을 멀리하게 되고 이를 둘러싸고 가족 간에 갈등이 지속된다. 소설은 상처입은 영혼을 그려내는 작가의 시적인 문장과 식물적 상상력이 결합해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해외에서 번역 출간되며 인기 끌며 끝까지, 주제의 보편성과 문체의 흡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 데이터에 따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대출 건수 1위를 차지하는 등 소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 역시 8위에 올라 작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강 작가의 여섯 번째 장편인 '소년이 온다'는 광주 5월을 다룬 작품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어린 생명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 대출 도서는 소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허기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2만678건)이 2위에 올랐고, 함평 출신 작가 정유정의 '종의 기원'(1만5231건)과 '7년의 밤'(1만4271건)은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유정의 소설은 독특한 상상력과 단문 위

주의 문체, 그리고 시종일관 물음을 강요하는 사건의 전개 등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페미니즘 열풍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5위)도 대출 순위 상위에 집계됐다. 서민들의 일상 속 고통과 비애를 다뤄 주변 곳곳에 존재하는 '김지영'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10위를 기록한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1만2335건)은 영화로 제작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두 명의 살인자와 한명의 형사가 등장해 펼쳐지는 이야기는 치밀한 두

뇌싸움을 매개로 전개된다.

소설이 아닌 책 가운데는 인문학과 심리학 서적이 인기를 끌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1만6103건)가 3위를 차지했고,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1만3467건)이 7위를 차지했다.

역사를 다룬 인문서 가운데 설민석의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1만3071건)은 9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대선과 맞물려 '국가'와 '권력'에 관한 부분을 다룬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 예로 강원국의 '대통령의 글쓰기',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등이 50위 안팎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띄어볼 만 하다.

또한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자는 여성(60%)이 남성(40%)보다 높았다. 그 가운데 40대 여성은 전체 도서 대출량의 22.3%를 기록해 가장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층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공공도서관은 68개가 신설돼 1106개로 늘어나고 장서 수 또한 798만 권 증가한 1억1200만 권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도서관 1개당 인구수는 4만9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줄고,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0권에서 2.2권으로 증가한다.

문체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중 2018년 도서관 계획'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문화 프로그램 수도 작년보다 10% 늘어난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5만1831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5000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문예르네상스 브랜드 기획 일본·동남아 관광객 상품 개발

전남문화관광재단 올 사업 계획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문화브랜드 개발과 영상강유역 마한 문화권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상)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18 주요 핵심사업과 그에 따른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창작 선순환 위한 특색 사업=남도문예르네상스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문화 브랜드를 개발한다

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브랜드 개발과 연계한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인력양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예술영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 남도문예르네상스, 영상기록·정보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등이 있다.

◇생활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이 사업은 '생활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사업' 운영과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나눠 추진된다. 전자는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 공모와 아울러 신규 수혜자 발굴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요문화학교는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에서 나아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장르의 다양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주요 사업이다.

◇마한문화권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영상강유역 마한 유적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포 지도를 토대로 한 마한문화권 실태 파악도 추진된다. 이와 연계한 마한문화권 학술대회도 개최해 고대·중·일 교류 추진 현황과 전남지역 고대인들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결과물은 연구 총서로 발간한다.

◇해외시장 다변화에 따른 차별적 마케팅 전략=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도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구·미주 등 신규시장 개척에 중점 의중도를 낮추고 단체, 개별,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역점을 둔다.

◇관광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사업 운영=전문가 참여로 문예르네상스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이와 연계해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주민주도형 관광업체 발굴과 지원도 모색한다

는 복안이다. 이밖에 '일스톱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운영·개선에 나선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렸던 전남 문화예술교육 포럼 장면.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최영미 '미투' 시에 문단 파문 확산

거론된 원로 시인 "후배 격려 위한 행동...뉘우친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 기사에 해당 원로 시인의 입장으로 보도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는 내용에 대해 "그 문인이 내가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습범이고 한두 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내가 등단할 때 일상화돼 있었다. 첫 시집을 1994년

에 내고 문단의 술자리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 목격한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단 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품이 나와도 그에 대해 한 줄도 쓰지 않고 원고를 보내도 채택하지 않는다. 문체는 그녀들의 피해가 입증할 수도 없고 '작품이 좋지 않아서 거절할 거예요'라고 말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작가로서 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영미 시인의 폭로와 시 '괴물'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류근 시인이

"○○ 시인의 성추행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양"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류근 시인은 "1960~1970년대부터 공공연했던 ○○ 시인의 손바닥, 몸바닥을 이저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적히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고, 하필이면 이 와중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 터뜨리듯 몰타기에 이용당하는 듯한 정황 또한 지겹고도 지겹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시인인 이승철 전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이 최 시인을 비판한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최 시인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내내 심기가 불편했다. 문단에 만연한 성추행이라니, 최영미는 참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것대로 마치 처치여러번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 무산

청년단체, 시에 답변 촉구

광주지역 29개 청년문화단체들의 연대체 '상상실현네트워크(간사단체(사)청년문화회)'가 7일 '2017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 무산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고 광주시에 답변을 요구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광주시에선 진행되는 '2017년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최 예정일인 12월 20일에서 일주일쯤을 채 남겨놓지 않고 급작스럽게 무산됐다"며 "급작스럽게 무산된 것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청년도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하나인 청년도시 컨퍼런스(시비 9000만 원)가 개최 일주일 전까지도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광주청년정책위원회(시 청년정책심의·의결 기구)에서 문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2017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이유 ▲2017년 12월 취소 당시 상황 ▲갑작스런 컨퍼런스 취소 사유 ▲2018년도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 진행상황 등의 내용의 담은 질의서를 공개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